

大學, 거듭나기



서울대 總長 趙 完 圭

우리나라 大學의 歷史는 결코 길지 못하다. 日帝 시대 帝國大學이 있긴 했으나, 그것은 주로 日本人 學生을 위한 것이었을 뿐 우리 韓國 學生들에게는 극히 좁은 門이었다. 다만 단순한 職業人을 길러낼 각종 專門學校나 高等學校가 있어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 機構를 통해서만 高等教育을 받을 수 있었다. 해방 후 좌·우익이 얽혀 매우 혼란할 때 이곳 저곳에 大學들이 서긴 했으나, 自生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6·25 사변을 겪는 동안 大學은 거의 死滅되다시피 했으나, 휴전 후 점차 그 틀이 잡혀가면서 大學들은 새로이 出發하였다. 그 뒤 4·19, 5·16, 10·26, 5·17을 겪어 가면서 大學은 거의 自律的 運營의 經驗을 쌓을 機會가 없었다. 4·19 직후 일시 政治體制가 民主化의 틀을 따라 가는 듯 했으나, 무분별한 統一論議, 政派間의 葛藤, 국민 각 계층의 欲求噴出로 인한 示威萬能世態 등이 원인이 되어 惹起된 5·16으로 사회의 自由 분위기의 規制는 곧 大學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로부터 大學에 대한 統制와 規制는 점차로 심해져 갔다. 3선 개헌 반대 운동, 유신 반대, 긴급 조치의 해제 등의 要求를 위한 學生들의 蜂起, 示威, 籠城 사태는 寧日이 없었고 이에 대한 政府의 對應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大學은 늘 公權力 介在에 의한 規制가 당연한 것처럼 大學人들 몸매 배어 왔다. 10·26 뒤 잠시 大學에 自律的 環境의 변화가 있었으나 오히려 硬直性에서 벗어난 탓으로 학내 혼란은 더 심했다. 5·17 뒤 강력한 학원 대처로 말미암아 또 다시 學園은 公權力에 의한 規制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民主化, 反獨裁 등의 요구는 끈질겨서 결국 6·29 선언을 낳게 하였다. 그 뒤 2년 반이 지난 오늘 大學은 우리나라 大學 歷史 이래 처음으로 고삐 풀린 말처럼 自由放縱의 方向으로 치닫게 되었다.

120 개가 넘는 각종 大學은 그 名分이 어떻든간에 學生들은 분별없이 총장실을 점거하거나 서류를 탈취하거나 집기를 태우거나 심지어 學長 등 教授의 머리를 짚는 등 도저히 師弟의 사이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왔다. 이른바 無能教授, 御用教授가 그들의 규탄의 표적이 되었고, 總·學長 選出에의 參與가 여의치 않다 해서 집단으로 大學 行政府에 폭력을 행사하고 教授에게 폭언하고 드디어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더 심한 실력 행사를 불사했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어 가면서 教授와 學生 사이, 大學行政 責任者와 教授·學生 사이의 不信의 골은 더 깊어갔고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그 끝을 막음해야 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學生의 수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教授와 學生 사이의 관계는 크게 好轉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 大學의 未來를 내다볼 때 이는 우리에게 매우 큰 憂慮를 갖게 한다. 이런 時點에서 우리는 大學이 다시 태어날 작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듭나기의 시작은 우리 教授와 大學責任者가 먼저 앞서야 할 것이라 믿는다.

학생들이 不信을 갖게 한 것에 우리 교수에게는 責任이 없었던가, 사랑할수록 더 무서운 메를 들어야 한다지만 우리 未來의 運命을 내맡길 사랑스런 弟子에게 메서운 메질을 아껴 온 것이 아닌가, 교수들은 與件이 어렵다는 구실로 教育刷新에 뼈를 깎는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닌가, 학생들에게 時間은 金이라 가르쳐 오면서 그 金같은 시간을 교수는 달리 虛費해 온 것이 아닌가, 자신의 생각이 正義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學生들에게 그의 옳은 判斷을 당당히 主張해 본 일이 있는가, 심하게 偏狹되고 매우 敎條적인 理念으로 가득찬 학생들을 교수들은 이미 저버린 것은 아닌가, 大學行政의 責任을 맡은 사람은 그간 몸에 배어온 權威主義를 아직 그대로 지너오거나 지너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大學行政은 公明正大했던가, 任期를 意識하여 자리에 연연한 일은 없었던가, 教授와의 사이에 례여 있던 골을 좁히는 데 果敢했던가, 學生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關心가져 본 일이 있는가, 行政의 民主化에 먼저 앞장서려고 努力은 했는가, 教授나 職員이나 學生들의 福祉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는가, 大學發展을 위한 自救的 努力은 없이 아직도 政府에 依支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名分없는 指示를 아직도 따르려 하는가, 과연 大學 責任者로서 社會로부터 權威와 尊敬을 받을 德目을 지니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 自問해 보아야 한다.

時代가 마침 民主化로 가는 과정에서 大學의 發展을 위해서는 大學行政 責任者의 反省이 앞서야 하고, 教授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學生은 믿음직한 弟子의 位置로 되돌아 와야 한다. 서로가 이같이 大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努力이 없는 한 우리나라 大學은 끝내 後進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90 년대에 접어들면서 지난 날의 大學의 어두운 모습은 깨끗이 가셔지고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